

1936년 상반기는 유럽과 아프리카, 중동과 동아시아에서 정치와 전쟁의 문법이 동시에 바뀌어 가던 시기였습니다. 유럽의 중심에서는 독일이 라인란트를 재점령하며 전간기 집단안보의 빈 껍데기를 드러냈고, 아프리카의 고원에서는 이탈리아가 독가스와 공군을 앞세워 고지대를 쫓으며 제국을 선포하기 직전의 마지막 공세를 밀어붙였습니다. 도쿄 한복판에서는 청년 장교들이 새벽의 설경 속에 정부청사를 점거했고, 팔레스타인에서는 항만과 철도, 시장과 시청 앞에서 장기 총파업이 시작되어 총독부와 경찰서의 동원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파리의 공장지대에서는 임금과 근로시간을 둘러싼 협상이 마침내 대타협으로 귀결되어, 전쟁을 향해 달리는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 갑자기 찾아온 노동의 화요일을 탄생시켰습니다. 같은 시각, 스칸디나비아의 항구는 중립과 국제법을 되뇌었고, 빈과 프라하와 바르샤바의 내각은 재정과 동원계획을 조정하며 철도 수송표를 새로 긋고 축선 방어의 선을 계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서로를 반사경처럼 비추며 지구의 반대편에서 일어난 일을 재빨리 닮아 갔습니다.

유럽 서부에서 가장 굵은 선은 3월 7일 독일의 라인란트 재군사화였습니다. 새벽부터 국경을 넘어 이동한 소규모의 선발대는 다리를 확보하고 검문소를 정리했으며, 뒤이어 들어온 부대는 도시의 관청과 전략 거점을 점령했습니다. 쾰른의 시청에서는 독일군 장교가 현지 경찰서장과 함께 성문 앞에서 짧은 회의를 했고, 라인강 교량의 통제권은 군으로 넘어갔습니다. 병력은 제한선에 맞춘듯 최소화되어 있었지만, 상징은 최대화되었습니다. 베르사유와 로카르노의 금지선이 지도로만 남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파리의 참모본부는 동원 여부를 논의했으나 국내 정치의 혼탁과 전선 배치의 곤란, 영국의 미온적 태도가 결합하여 군사적 대응은 지연되었습니다. 런던은 전권위원회 격의 각료회의를 열어 대륙 파병의 명분과 기간, 비용을 따졌고, 공군의 역지력과 해군의 봉쇄 가능성을 저울질했습니다. 베를린의 선전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라디오 연설과 신문 1면은 독일의 "평화적 회복"을 강조했고, 곧이어 열린 국민투표는 정권이 기대한 수치에 가까운 지지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실제 전투는 없었지만, 파견된 부대의 행군로와 배치, 야전전화의 가설과 보급열차의 편성표는 이후 3년간 서부 방어선을 축성하는 공병대의 도면으로 이어졌습니다.

프랑스 내부에서는 4월과 5월에 걸친 총선이 인민전선의 승리로 귀결되었고,